

요한복음 6:32에 나타난 οὐ~ ἄλλ'~ 구문에 대한 소고

박영진*

1. 들어가는 말

요한복음 6장의 중심인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의 말씀은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대답에서 시작된다. 그런 점에서 생명의 떡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32-33절은 앞으로 생명의 떡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2절에 나오는 예수의 답변을 우리의 말로 이해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이 구절은 문맥에 맞지 않아 보인다. 그것은 32-33절에 나오는 예수의 답변이 30-31절에 나온 무리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리들은 30-31절에서 예수께 질문 형식을 빌어,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표적을 보여 줄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고, 무리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¹⁾

게다가 32절의 예수의 답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점이 있다. 예수의 답변은 οὐ~ ἄλλ'~ 라는 구문으로 이루어져, 하늘에서 내린 떡과 관련하여 모세와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인다.²⁾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하늘의 떡을 주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사형태가 모세와 관련해서는 현재완료형으로 나와 있고,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서, 모세와 관련한 떡과 후반부의 하나님과 관련한 떡은 서로 다른 떡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예수의 답변이 과거에 떡을 주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신약학.

1) J. Painter, “Jesus and the Quest for Eternal Life”, R. A. Culpepper, ed., *Critical Readings of John 6* (Leiden [u.a.]: Brill, 1997), 80; E. C. Hoskyns, *The Fourth gospel* (London: Faber and Faber, 1947), 294.

2) 이 구문은 대조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6장 안에서도 여러 번 나온다. 이것은 3장에 나오는 예수의 답변 구조에서 다루려고 한다.

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 문장에서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답변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은, 전반절에 과거에 하늘의 떡을 준 분으로 모세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의 답변이다.³⁾ 왜냐하면 사실 무리들이 만나의 표적을 요구할 때 그들이 모세가 만나를 준 분이라고 말하고 있거나 또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인용구에서 그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⁴⁾ 그러므로 예수의 답변은 마치 무리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부정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은 32절에 나타난 οὐ~ἀλλ'~ 구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왜냐하면 이 구문을 정확히 파악하면 위에서 제기한 두 번째 문제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문제에서 제기된, 32절의 부정어가 부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32절의 답변이 그 앞에 나오는 무리들의 질문형식을 띤 요구와 어떤 관계를 맺는 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예수의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할 때, 2장에서는 이 구문에서 부정어가 모세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 외의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이 대조구문이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지를 다루어 32절에 나타난 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그런 검토를 토대로 해서, 이 의미를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지 제안을 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이런 추론을 근거로 하여 32절의 답변을 본문의 맥락 속에서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부정의 대상

32절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을, 특별히 앞부분에 나오는 부정문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을 바레트(C. K. Barrett)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했다.⁵⁾ 첫째는 주어인 모세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너희에게 하늘의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먹은 떡의 기원이 하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은 하늘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3) 주어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해석은 위에서 제시한 영어역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NIV, NRS, NAS, 『현대인의 성경』, 『공동』).

4) 이 점은 2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5) C. K. Barret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an introd. with commentary and notes on the Greek tex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8), 289-290.

서 너희에게 지금 주시는 참된 하늘의 떡과 대조되는 물리적인 떡이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즉,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의 떡을 주었느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문문은 “그래 정말 그랬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된 하늘의 떡을 주신다.”라는 말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첫 번째 번역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이름의 위치가 부각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부정어 οὐ가 모세라는 이름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⁶⁾

실제로 32절에 나타난 예수의 답변은 부정문과 긍정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부정문은 부정어가 모세 앞에 옴으로써 모세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⁷⁾ 그런데 이런 부정은 무리들이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고 말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⁸⁾ 그러나 31절에서 무리들은 모세를 주어로 말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을 주어로 해서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인용한 성경

6)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첫 번째 해석을 따르고 있다. R. Bultmann, *Das Evangelium des Johann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169; J. H. Bernar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Vol. I* (Edinburgh: T. & T. Clark, 1953), 195;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Garden City: Doubleday, 1966), 262; B. Lindars, *The gospel of John* (London: Oliphants, 1977), 257; R. Schnackenburg, *Das Johannesevangelium Teil 2* (Freiburg im Breisgau: Herder, 1985), 55; T. Okure, *The Johannine approach to mission: a contextual study of John 4:1-42* (Tübingen: J. C. B. Mohr, 1988), 90; H. Hübner, *Biblische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Bd.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167; U. Wilckens, *Das Evangelium nach Johann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101; M. Labahn, *Offenbarung in Zeichen und Wort: Untersuchungen zur Vorgeschichte von Joh 6,1-25a und seiner Rezeption in der Brotrede* (Tübingen: Mohr Siebeck, 2000), 62; H. Thyen, *Das Johannesevangelium* (Tübingen: Mohr Siebeck, 2005), 351. 특별히 P. Borgen은 이 구절을 구약의 구절에 대한 예수의 새로운 해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면서 주어와 함께 특별히 동사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즉, 히브리어 동사의 자음은 그대로 두고 모음을 새롭게 적음으로써 완료형을 분사 형태로 바꾸고 그리하여 이를 현재형으로 해석하였다고 본다. P. Borgen, “Observations on the midrashic character of John 6”, *ZNW* 54 (1963), 233-234.

7) 헬라어에서 부정어는 대체로 자신이 부정하는 말 앞에 온다. F. Blass und A. Debrunner und F.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Joachim Jeremias zum 75. Geburtst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¹⁸2001), §433. Herbert W. Smyth, *Greek Grammar*, rev. by Gordon M. Mess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2690. 예외의 경우는 관사나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그리고 부정사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분사나 형용사가 나올 경우 이를 부정하는 부정어는 전치사 앞에 나온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부정어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모세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천상의 기원, 또는 동사나 간접목적어는 이 부정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8) 이필찬,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고양: 엔 크리스토, 2009), 180f; J. Painter, “Jesus and the Quest”, 81. 그 외에도 G. Richter, “Die alttestamentlichen Zitate in der Rede vom Himmelsbrot Joh 6,26-51a”, J. Heinz, ed., *Studien zum Johannesevangelium* (Regensburg: Pustet, 1977), 209; M. J. J. Menken, “The Provenance and Meaning of the old testament in John 6:31”, *NT* 30 (1988), 46.

구절에서도 주어는 모세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인칭 단수로서 생략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이 생략된 3인칭 단수인 주어를 모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무리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즉, 하늘의 떡을 주신 분으로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인용구에서 생략된 주어인 3인칭 단수인 주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31절에 인용된 성경구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구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약의 구절이 없기 때문이다.⁹⁾ 다만 인용구절의 출처로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은 몇 군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시편 78:24; 출애굽기 16:4, 15; 느헤미야 9:15이다.¹⁰⁾ 그러므로 이 구절들에서 하늘의 떡을 주신 분을 누구로 보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요한복음 6:31에 나오는 인용구에서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분을 누구로 생각했는지를 헤아려 보고자 한다.

(NTG²⁷ 요 6:31)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φαγεῖν.

(LXX 시 77:24)¹¹⁾ καὶ ἔβρεξεν αὐτοῖς μαννα φαγεῖν καὶ ἄρτον οὐρανοῦ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BHS 시 78:24) וַיִּמְטֵר עֲלֵיהֶם מֶן לֶאֱכֹל וַיִּדְגֵן שָׁמַיִם גֶּתִין לָמוֹ

먼저 LXX 시편 77:24와 요한복음 6:31을 비교해 보면 동사의 형태(ἔδωκεν)가 일치하고 여격(αὐτοῖς)이 같다. 그리고 하늘의 떡을 수식하는 부정사(φαγεῖν)가 LXX 시편 77:24에서는 비록 앞의 문장에 나타나긴 하지만 동일하게 확인된다. 그에 반해서 떡을 수식해 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6:31의 인용구에서는 전치사구(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로 나온 반면에, LXX 시편 77:24에서는 속격의 형태(οὐρανοῦ)로 나와 있는 점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LXX 시편 77편은 애굽에서 해방된 때부터 다윗 왕의 통치 때까지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계

9) S. Hylan, *Allusion and meaning in Joh 6* (Berlin [u.a.]: de Gruyter, 2005), 135f; J. Painter, "Jesus and the Quest", 80. 박수암은 이를 사상인용이라고 본다. 박수암, 『요한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86. 이 점은 이다음에 병행해 나오는 LXX과의 대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0) C. K. Barrett, *Gospel*, 289; R. E. Brown, *John I-XII*, 262; W. Bauer, *Das Johannesevangelium*, HNT 6 (Tübingen: Mohr, 1933), 95; B. Lindars, *John* (London: Oliphants, 1977), 256f; R. Schnackenburg, *Johannesevangelium 2*, 54; U. Schnelle, *Das Evangelium nach Johannes* (Leipzig: Evang. Verl.-Anst., 1998), 123 n.34; H. Thyen, *Johannesevangelium*, 351; 이상훈, 『요한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63. NTG²⁷은 시편 78:24; 출애굽기 16:4, 15를 출처로 본다. 이 글에서 이 구절들의 LXX과 요한복음 6:31을 비교해 보면서 그 유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LXX에서는 시편 78:24가 시편 77:24로 나와 있다.

속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며 불순종했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즉, 이 맥락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모세가 아니다. 이 점은 구문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분명해진다. LXX으로 볼 때, 24절에서 하늘의 떡을 주는 분은 3인칭 단수로서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이 주어는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24절의 ἔδωκεν은 그 앞에 나오는 동사 ἔβρεξεν과 ἀνέωξεν 그리고 ἐνετείλατο와 함께 21절에 나오는 κύριος를 주어로 갖는데, 이것은 BHS 본문의 “여호와”를 번역한 말이기 때문이다. BHS 본문도 크게 LXX과 다르지 않다. 다만 떡에 해당하는 단어가 ἄρτος가 아니라, ἄρτος라는 점에서 LXX과 다르다. 그러므로 구약 본문에 나오는 동사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¹²⁾ 만약에 요한복음 6:31의 인용구가 LXX 시편 77:24에 근거했다면 이 인용구절에서 주어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NTG²⁷ 요 6:31)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φαγεῖν.

(LXX 출 16:4) ἰδοὺ ἐγὼ ὕω ὑμῖν ἄρτους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LXX 출 16:4) מִמַּטֵּיִר לֶכֶם לֶחֶם מִן־הַשָּׁמַיִם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은 LXX 출애굽기 16:4이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6:31과 비교해 볼 때 떡을 수식해 주는 ‘하늘로부터’라는 전치사구(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가 일치한다. 예수의 생명의 떡 설교에서 이 수식어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 구절은 인용구의 출처로서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떡이 요한복음 6:31과 달리 LXX에서는 복수형(ἄρτους)으로 나와 있고, 동사도 ἔδωκεν이 아니라 ὕω(비같이 내리게 하다)로 나와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일인칭 단수인 ἐγ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외에도 간접목적어가 αὐτοῖς가 아니라 ὑμῖν으로 나와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BHS 본문에서는 LXX과 거의 같은데 떡이 단수형(ἄρτος)으로 나와 있다는 것과 주어가 요한복음 6:31처럼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절이 인용구의 출처로 보기에는 시편 78:24보다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문장요소 사이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맥 자체

12) A. Obermann, *Die Christologische Erfüllung der Schrift im Johannesevangelium: eine Untersuchung zur johanneischen Hermeneutik anhand der Schriftzitate* (Tübingen: J. C. B. Mohr, 1996), 145-146.

가 요한복음 6:31에서는 대명사가 다 3인칭으로 나와 있어서 이 구절이 이 만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제3자에 의해 서술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반면에, 출애굽기 16:4는 1인칭과 2인칭 대명사가 나옴으로써 그리고 동사가 현재형이나 분사형으로 나옴으로써,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의 진술임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언급은 4절 처음에 나오는 주,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인칭 대명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실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맥락에서 모세는 단지 이런 일을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 듣는 입장이지, 만나를 내려주는 주어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6:4를 근거로 무리들이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요한복음 6:31에 인용된 문장의 주어인 3인칭 단수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아야 한다.

(NTG²⁷ 요 6:31)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φαγεῖν.
 (LXX 출 16:15) οὗτος ὁ ἄρτος ὃν ἔδωκεν κύριος ὑμῖν φαγεῖν ,
 (BHS 출 16:15) הוּא הַלֶּחֶם אֲשֶׁר נָתַן יְהוָה לָכֶם לֶאֱכֹלָהּ

다음으로 요한복음 6:31의 인용구의 출처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LXX 출애굽기 16:15이다. 이 구절은 동사 ἔδωκεν과 부정사 φαγεῖν이 나와 있다는 점에서는 요한복음 6:31의 인용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간접목적어가 다르고, “하늘에서 내린(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이라는 전치사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문장구조가 관계대명사절로 떡을 꾸미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주어도 생략되지 않고 주님으로, 곧 여호와 하나님으로 명시되어 있다.¹³⁾ 이상으로 볼 때 이 구절은 출애굽기 16:4 보다는 인용구와 더 많은 공통점을 보여 주지만, 그러나 시편 78:24보다는 덜 보여준다. 특히 출애굽기 16:4에서처럼 2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구절도 만나 이적의 당사자와 관련된 말씀으로 요한복음 6:31에서 사용된 3인칭 대명사가 의미하는 제3자의 진술이라는 특색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구절에서도 만나를 베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다른 구절들과 달리 떡을 떡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시되어

13) 앞에서처럼 LXX은 BHS 본문의 여호와를 κύριος로 번역한 것이다.

있다. 그리고 문맥을 살펴보더라도 이 구절은 모세가 만나 이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이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가운데 나오는 말이다. 즉, 초점이 하나님이시 모세가 아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6:15가 요한복음 6:31의 인용구의 출처라고 보더라도 이 구절에서 만나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요한복음 6:31의 생략된 주어인 3인칭 단수 대명사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NTG²⁷ 요 6:31)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φαγεῖν.

(LXX 느 9:15) καὶ ἄρτον ἐξ οὐρανοῦ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BHS 느 9:15) אֶרֶץ מִן הַשָּׁמַיִם מִן הַשָּׁמַיִם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9:15를 요한복음 6:31에 나오는 인용구의 출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떡을 수식해 주는 하늘의 기원이 전치사구 형태(ἐξ οὐρανοῦ)로 표현되어 있고, 간접목적어(αὐτοῖς)가 같다는 점에서 요한복음 6:31의 인용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주어는 비록 생략되어 있지만 동사를 볼 때 2인칭 단수(ἔδωκεν)로 나와 있고, 전치사구도 하늘이라는 명사에 정관사가 빠져 있다는 점(ἐξ οὐρανοῦ)에서는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사(φαγεῖν)도 빠져 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늘의 떡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하늘의 떡을 주신 분은 2인칭 단수로서 문장 안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2인칭 단수는 7절에 나오는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인 σύ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인칭대명사는 같은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일치한다. 그리고 7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2인칭 단수를 주어로 하는 동사들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15절에 나오는 동사의 주어인 2인칭 단수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러기에 15절에서 하늘의 떡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엇보다 문맥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은 우주창조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적과 관련하여 모세는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 다만 시내산 율법과 관련하여 모세가 전달자로 잠깐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역시 이 단락에서도 모세가 만나 이적의 주어로 언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이 아닌 유대교의 문서에서 이 인용구절이 나왔을 것

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리히터(G. Richter)는 구약에서는 인용구절의 출처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유대교의 만나전승에서 그 출처를 찾아 보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표현한 내용이 유대교의 전승에서는 다른 인물에게 전이된 경우가 있는데, 특히 모세에게로 주어를 옮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그런 전승에서도 표현은 모세를 주어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어로 본다는 것이다.¹⁴⁾ 그

- 14) G. Richter, “alttestamentlichen Zitate”, 211-229; B. Lindars, *John*, 257; R. Schnackenburg, *Johannesevangelium* 2, 55. 이와 관련하여 Beasley-Murray는 Midrash Rabbah의 Qohelet 1:9에 나오는 첫 구원자-마지막 구원자를 대비하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고 믿는 유대교 전승이 있었고, 이 전승이 바로 6:31에 인용된 구절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무리들이 이 구절을 인용할 때 모세를 만나를 준 자로 생각했다고 본다. G. R. Beasley-Murray, 『요한복음』, 이덕신 역 (서울: 솔로몬, 2001), 259. 사실 이 미드라쉬 문서에 나오는 마지막 구원자의 세 가지 모습, 즉, 나귀를 타는 모습, 만나를 주는 모습, 그리고 생수를 주는 모습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과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이 문서가 요한복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A. Cohen, *Ecclesiastes*, H. Freedman und M. Simon, eds., *Midrash Rabbah VIII* 3 ed. (London und Newyork: Soncino Press, 1983), 33. 하지만 이 문서의 연대는 9세기로 추정된다. M. D. Herr, “Ecclesiastes Rabbah”, F. Skolnik and M. Berenbaum, eds., *Encyclopedia Judaica* 6 (Detroit [u.a.]: Thomson Gale, 2007), 90. 그러므로 이 문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뒷받침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 문서가 담고 있는 전승이 요한복음이 쓰일 때 유대인들의 전승과 전혀 무관하다고 확증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문서가 담고 있는 전승이 실사 1-2세기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희망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만나를 주신 분으로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생각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전승에서 비록 첫 번째 구원자로서의 모세와 마지막 구원자로서의 종말론적인 메시아가 만나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은 1-2세기의 유대교 전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세기 유대교 전승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를 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만나 전승을 담고 있는 문서로는 Sibyllinen Fragment 3,49와 Syrische Baruch-Apokalypse 29,8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문서들을 살펴보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묘사하면서 만나 이적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이적의 주어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 H. Merkel, *Sibyllinen*, JSHRZ V,8 (Gütersloh: Gütersloher Verl.-Haus, 1998), 1068-1069; A. F. J. Klijn, *Die syrische Baruch-Apokalypse*, E. Brandenburger und U. B. Müller und A. F. J. Klijn, ed., *Apokalypsen*, JSHRZ V,2 (Gütersloh: Mohn, 1976), 114. 이 문서들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자는 2세기로 보고, 후자는 2세기 초반, 심지어 1세기 성전 파괴 전으로 보기까지 한다. J. J. Collins, “Sibylline Oracles”, J. H. Charlesworth, 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Vol. 1*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83), 322; G. S. Oegema, *Einführung zu den Jüdischen Schriften aus hellenistisch-römischer Zeit*, JSHRZ, VI,1 (Gütersloh: Mohn, 2005), 60; A. F. J. Klijn, *Die syrische Baruch-Apokalypse*, 114; M. E. Stone, “Apocalyptic Literature”, M. E. Stone, ed., *Jewish writings of the Second Temple Period: apocrypha, pseudepigrapha, Qumran sectarian writings, Philo, Josephus* (Assen; Maastricht [u.a.]: Van Gorcum [u.a.], 1984), 408. 그런 점에서 1-2세기의 유대교 전승은 하나님을 만나를 주신 분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구원자-마지막 구원자 전승에서 비록 모세를 만나를 주신 분으로 보는 전승이 1-2세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참고로 모세를 만나를 주신 분으로 보는 전승이 1-2세기 유대교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M. J. J. Menken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세를 만나의 수여자로 보는 전승은 1세기 말경에 존재했는데, 기독교가 자신들의 메시아

렇다고 한다면 이런 유대전승에서도 실질적인 주어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기에 이런 유대전승을 무리들이 인용하였다면 그들은 만나를 준 분으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시 유대전승에서 이 인용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이 인용구를 통해서 하늘의 떡을 주신 분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염두에 두었다고 가정할 수 없다.¹⁵⁾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복음 6:31에서 인용구를 끌어오는 도입구(καθώς ἐστὶν γεγραμμένον)는 이 다음에 오는 구절이 성경에서 인용됐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도입구는 항상 성경구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¹⁶⁾

이상을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 6:31에 나오는 인용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구약성경구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⁷⁾ 다만 위에서 비교해 본 대로 시편 78:24가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절로 추정된다.¹⁸⁾ 이처럼 요한복음 6:31과 정확히 일치한 구절은 없지만, 이 구절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하늘의 떡을 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에서 주어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¹⁹⁾ 무엇보다 이 모세의 만나 이적을 요한복음 6:31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편 78:24나 느헤미야 9:15에서는²⁰⁾ 이 하늘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31에서도 이 하늘의 떡을 주신 분이 비록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의 주어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²¹⁾

인 예수를 모세와 비교하면서 신격화하자 답비 유대교가 반대하면서 이런 전승을 숨겼다고 본다. M. J. J. Menken, "Quotation", 46-48.

- 15) 무엇보다 예수께서 그런 유대교 문서의 전체를 모르고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고 말한 것처럼 오해하셔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반박하셨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본다.
- 16) A. Obermann, *Erfüllung*, 132. 특별히 이 인용구는 요한복음 6:31과 12:14에서만 나타나는 도입구라는 점에서 요한복음 기자의 손길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 17) U. Schnelle, *Johannes*, 123 n.34
- 18) M. J. J. Menken, "Quotation", 56; A. Obermann, *Erfüllung*, 135; J. Painter, "Jesus and the Quest", 80; U. Schnelle, *Johannes*, 123 n.34; Bauer, *Johannesevangelium*, 95; H. Hübner, *Biblische Theologie* 3, 167. 이와 달리 출애굽기 16:4, 15를 출처로 보는 의견은 J. H. Bernard, *John I*, 194; U. Wilckens, *Johannes*, 101; H. Thyen, *Johannesevangelium*, 351; G. R. 비슬리 머리, 『요한복음』, 259. 이들의 근거는 백성들의 반응이 출애굽기 16장과 요한복음 6장이 유사하다는 것과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라는 전치사구가 나온다는 점이다. 그밖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M. Labahn, *Offenbarung*, 62 n.87-90.
- 19) 이필찬,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175; M. J. J. Menken, "Quotation", 46; A. Obermann, *Erfüllung*, 135; M. Labahn, *Offenbarung*, 78.
- 20) 이 구절들이 3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여기에 나온 간접목적어가 3인칭 복수형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두 구절은 간접목적어가 2인칭 복수형으로 서술됨으로써 만나 이적의 당사자들과 관련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만약에 무리들이 인용한 구절에서 하늘의 떡을 주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다면, 이를 인용한 무리들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의 떡을 주신 분으로 생각하고 인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리들은 하늘의 떡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는데도 예수께서는 하늘의 떡을 주신 분이 모세가 아니었다라고 부정하심으로 그들의 이해를 반박하려고 하셨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²²⁾ 그러므로 여기서 부정어가 모세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부정의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바레트가 제안한 대로 떡의 기원에 대한 부정이다.²³⁾ 즉, 모세를 통하여 준 만나는 하늘의 떡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부정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그것은 앞에서 구약 인용구절들로 추정되는 구절에서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각 구절마다 떡의 기원이 하늘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출애굽기 16:15에서만 생략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출애굽기 16:4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떡이 하늘의 떡이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또한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라는 구절은 그 떡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주어 문제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예수께서 만나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셨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 부정어가 들어간 문장을 의문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본다는 것은 만나를 준 자가 모세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약의 구절들에서는 만나를 준 자가 모세라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또한 문맥을 살펴봐도 모세는 전혀 부각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예수께서 모세가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다는 것은 전혀 문맥에 맞지 않다. 게다가 이어져 나오는 설교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만나는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떡과 대조되어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6:49-51, 58),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런 대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이를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것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부정어 οὐ가 부정하는 것을 이 부정문 안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께서 이 부정어를 통하여 부정하시려는 대상은 무엇이었을까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부정문을 넘어서서 32절 전체에 나타난 예수의 답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1) B. Lindars, *John*, 257.

22) M. Labahn, *Offenbarung*, 62 n.92.

23) C. K. Barrett, *Gospel*, 289-290; R. Schnackenburg, *Johannesevangelium* 2, 55.

이 부정문은 그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 ἄλλ'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예수의 답변의 구조

32절에 나타난 예수의 답변은 οὐ~ ἄλλ'~라는 상관된 부정어와 접속사를 통해 부각되는 대조구문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²⁴⁾ 왜냐하면 6장 안에서 이 구문은 대조구문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대조구문은 요한복음 6장에만 32절을 제외하고 5번 나온다(22, 26, 27, 38, 39절). 이 중에 22절을 빼고는 모두 예수의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 중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 구문은 상반된 두 가지의 대조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26절에서는 예수를 찾는 두 가지 이유가 이 구문을 통해 대조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하나의 이유는 먹고 배부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적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지는 27절에서는 일하는 목적으로 두 가지의 대조되는 떡이 이 구문을 통해 서술되어 있다. 하나는 썩는 양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38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두 가지 이유가 이 구문을 통해 대조적인 방식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과 자신을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39절에서는 자신을 보내신 자의 뜻이 두 가지 서로 대조를 이루는 방식으로 제시되는데, 한 가지는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이와 대조되는 다른 한 가지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 이 구문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대조를 통해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 구문은 32절에서도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32절에서 예수께서 두 가지 종류를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 답변을 여는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이라는 구문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구문이 사용될 때도 두 가지 상반되는 것들의 대조가 뒤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32절을 제외하고 이 구문은 모두 3번 나오는데(26, 47, 53절), 이런 대조가 잘 나타나 있다. 이 중에서 26절의 경우는 방금 살펴본 대로 예수를 찾는 두 가지 상반된 이유들의 대조가 뒤따라오고, 53절에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에 대한 대조가 나타나 있다. 계속되는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한 설명은 58절에서 조상들이 먹은 떡

24) 이필찬,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181.

인 만나와 예수께서 지금 주시는 떡에 대한 대조로 마무리되고 있다. 47절에서는 이 구문이 직접적으로 대조되는 내용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49절과 50절에서 두 가지 대조되는 떡의 효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이 구문에 두 가지의 상반된 것들의 대조가 이어져서 나온다는 것은 6장에서 이런 대조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32절에서도 두 가지 상반되는 것들의 대조를 다루고 있다고 추론하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이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는 οὐ~ ἀλλ’~라는 구문과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구문을 통해 상반된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대조는 주로 두 가지 대조되는 떡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 두 구문이 함께 나오는 26절과 27절에서 이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더 나아가 이 대조되는 떡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만나와 예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떡의 대조로 이어지고 있다(요 6:49f; 58).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32절에서도 예수의 답변은 뭔가를 대조하고 있는 양식을 갖고 있고, 이런 대조의 틀 속에서 32절의 부정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만약에 32절에서 예수께서 뭔가 상반된 두 가지를 대조하고자 하신다면 부정하고자 하시는 것과 그와 대조적으로 긍정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32절에 나타난 부정문과 긍정문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부정하시는 것과 긍정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문과 긍정문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 드러난 차이는 주어와 동사의 시제, 그리고 긍정문에 첨가된 형용사인 τὸν ἀληθινόν이다.²⁵⁾

먼저 주어가 “모세”와 “나의 아버지”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실제로 우리들이 인용한 성경구절에서 하늘의 떡을 주신 분을 모세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았고, 또 유대교 전승에서도 만나를 주신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만나를 주신 분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긍정문에 첨가된 형용사인 τὸν ἀληθινόν이다. 즉, 참된 떡과 그렇지 않은 떡의 차이를 대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류의 수식어가 긍정하는 떡에만 붙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은 떡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수식어의 유무를 가지고 대조의 내용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25) Schnackenburg도 이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런 차이에 근거하여 예수께서 만나와 대조된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떡을 소개하고 있다고 본다. R. Schnackenburg, *Johannesevangelium* 2, 55.

보인다. 오히려 여기서 τὸν ἄληθινόν이라는 형용사는 이미 대조를 통해 차이가 난 떡을 보면서 긍정하는 떡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²⁶⁾ 그러기에 전자의 부정문과 후자의 긍정문 사이의 차이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차이는 시제의 차이이다. 즉, 현재완료형과 현재형의 차이이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²⁷⁾ 주신 과거의 떡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현재의 떡을 대조하여 전자를 부정하고, 후자를 긍정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하늘의 떡과 현재의 떡의 대조는 사실 6장의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에서 반복하여 대조되고 있다. 특히 49-50절과 58절에서 이 두 가지의 떡의 차이가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두 가지 떡의 근본적인 차이인 먹고 죽는 것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27절에 나온 두 가지의 떡의 대조도 사실은 과거의 모세의 만나와 현재의 예수의 생명의 떡의 대조와도 연결됨을 추론할 수 있다. 즉, 27절에서 시작된 두 가지 종류의 떡의 대조가 32절에서는 과거의 하늘의 떡과 현재의 하늘의 떡의 대조로, 다시 말하면 과거의 모세를 통한 만나와 현재의 예수를 통한 떡과의 대조로 언급되어 있고, 이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떡의 대조는 49-50절에서 강조되고, 58절에서 결론적으로 부각되어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32절의 부정문에서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논증한 대로 부정문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부정문이 나타내는 과거의 하늘의 떡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긍정문에서 긍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떡 자체이다.²⁸⁾ 이런 해석이 만나와 예수의 떡을 대조시키는 요한복음 6장의 맥락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32절의 예수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²⁹⁾ 예수께서 그들에게³⁰⁾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하늘의³¹⁾ 떡이 아니

26) 이 형용사가 수식을 받는 명사에서 떨어져 나와 관사와 함께 이 대조구문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것도 이런 기능을 암시해 준다.

27) 32절의 부정문에서 주어로 나오는 모세는 문법상 주어이지만 내용상 ‘모세를 통하여’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무리들은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기에 예수도 모세를 주어로 해서 이를 지적하신 것으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기서 주어를 모세로 해서 모세를 부각시킨 이유는 모세를 통해 준 만나를 상징하는 것이 모세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내용에 맞게 ‘모세를 통하여’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28) 이상훈, 『요한복음』, 263; 박수암, 『요한복음』, 187.

29) οὖν을 이 번역에서는 살려 주었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문맥을 검토할 때 설명하겠다.

30) αὐτοῖς도 이 번역에서 살려주었는데, 역시 이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다.

31)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늘로부터”로 되어 있어서 “주다(δέδωκεν)”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런데 동사보다는 떡을 꾸며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원래 이 구절이 떡을 꾸며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은 출애굽기 16장의 기사를 전해주고 있는 LXX 시편

라, 내 아버지께서 지금 너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떡, 곧 참된 떡.” ” 이렇게 본문을 볼 때 이 구문에 나타난 대조의 핵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줄 수 있다고 본다.³²⁾

4. 문맥에 따른 요한복음 6:32의 의미

32절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 구절은 상반된 떡의 대조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온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더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32절을 앞에 나오는 무리들의 발언과 연결지어 생각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32절은 무리들의 발언에 대한 예수의 반응³³⁾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관관계를 32절에서 예수의 답변을 끌어오는 도입구에서 추론할 수 있다. 특별히 불변화사인 οὖν과 그리고 예수의 반응의 대상을 가리키는 간접 목적어 αὐτοῖς에서 32절의 말씀이 30-31절에 나타난 무리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의 요구와 관련해서 해석해야 됨을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변화사인 οὖ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표시로 여러 번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앞에서 주어진 말에 대한 반응을 도입할 때 쓰인 경우는 요한복음 6:13, 28, 30, 34, 41, 52, 53에 나타나 있고, 앞에 일어난 행동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 경우는 요한복음 6:14f과 67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용례를 살펴볼 때³⁴⁾ 32절

77:2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구절의 출처로 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LXX 시편 77:24에서는 이것이 소유격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구절을 떡을 꾸며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떡을 꾸며준다고 할 때, 이 어구가 상징하는 떡의 신적인 기원을 보다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를 “하늘의”로 고쳐 보았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라는 번역을 살려준다면,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주었던 떡이 아니라...”

32)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부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목적이인 하늘의 떡(τὸν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아니라, 모세가 주었다는 그 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H. L. Strack und P. Billerbeck,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aus Talmud und Midrasch II* (München: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24), 482; 지동식, 『요한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145.

33) R. Meyer, Art. *Μάννα*, *ThWNT IV* (Stuttgart [u. a.]: Kohlhammer, 1942), 466-470. 이와 반대로 Kollmann은 32절의 예수의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무리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31절에 나온 인용구에 대한 주석이라고 보았다. B. Kollmann, *Ursprung und Gestalten der frühchristlichen Mahlfei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114.

34) 릭쉬틀(E. Ruckstuhl)은 이 불변화사를 요한의 문체로서 특별히 이야기를 이어 주는 연결사이고, 그 의미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등(daraufhin, deswegen, so)”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에서도 이 불변화사 οὐν은 32절의 예수의 말씀이 30-31절에서의 무리들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32절의 예수의 말씀은 30-31절에서의 무리들의 발언과 관련해 이해되고 보충되어야 한다.³⁵⁾

다음으로 32절의 예수의 말씀과 그 앞에 나오는 무리들의 발언과의 깊은 상관성은 이 말씀의 도입구에 나오는 간접목적어 αὐτοῖς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 간접목적어는 32절의 예수의 말씀이 그 앞에 나오는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그래서 그의 말씀은 이 무리들의 발언에 대한 반응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32절의 예수의 말씀은 무리들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간접목적어가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³⁶⁾

이처럼 불변화사 οὐν이나 간접목적어 αὐτοῖς는 32절의 예수의 말씀이 그 앞에 나온 무리들의 발언에 맞춰서 이해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예수의 말씀도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무리들의 발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그렇다면 무리들의 발언은 무엇이었는가? 30-31절에 나타난 무리들의 발언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느냐고 예수께 묻는 것이었다. 이것은 질문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 달라는 요구이다.³⁷⁾ 그러면서 그들은 그 표적의 한 예로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제시하고 있다. 즉,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그것도 만나와 같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32절에서 예수께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답변을 무리들의 요구를 통해 보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해석할 것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하늘의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지금 너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떡, 곧 참된 떡을 표적으로 주겠다.”

보았다. E. Ruckstuhl, *Die literarische Einheit des Johannesevangeliums: der gegenwärtige Stand der einschlägigen Forschungen* (Freiburg, Schweiz: Univ.-Verl.[u.a.], 1988), 293.

35) 그런 점에서 앞 장의 결론부에 제안한 대로, 6:32의 번역에 빠져 있는 “οὐν”를 넣어서 해석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36) 이와 같은 이유로, αὐτοῖς도 앞 장의 제안처럼 넣어서 해석해 줄 때 이런 맥락을 충분히 살려 준다.

37) A. Obermann, *Erfüllung*, 138.

5. 나가는 말

요한복음 6:32는 6장의 핵심 주제인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의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는 6장에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alpha\upsilon\sim\acute{\alpha}\lambda\lambda\prime$ 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상반된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번역은 이 대조를 떡을 준 자에 대한 대조로 해석하였다. 이런 대조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32절의 답변을 야기시킨 31절, 특히 그 인용구에서 모세를 주어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기에 이 상반된 대조를 다른 점에서 찾아봐야 하는데, 그것은 이 문장에서 보여지는 시제의 차이, 곧 과거의 떡과 현재의 떡의 대조로 보는 것이, 6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거의, 먹고 죽는 모세의 만나와 현재의,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의 대조를 볼 때, 타당하게 보인다. 32절의 긍정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이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으로서 긍정되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33절을 봐서도 확인된다. 그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32절의 답변을 이러한 두 가지의 떡의 대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고, 이런 대조를 특별히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의 답변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런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해석을 제시해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이 대답은 이 다음에 나오는 생명의 떡을 도입하는 구절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보여주리라고 본다.

<주요어>(Keywords)

요한복음 6:32, 모세, 만나, 생명의 떡, 대조.

John 6:32, Moses, Manna, bread of life, contrast.

(투고 일자: 2011. 2. 7; 심사 일자: 2011. 2. 28; 게재 확정 일자: 2011. 3. 30)

<참고문헌>(Reference)

- Elliger, K., et. al., ed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stiftung, 1977.
- Nestle, E. und Aland, K.,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27. rev.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 Rahlfs, A. ed., *Septuaginta: id est vetus testamentum graece iuxta LXX interpretes; duo volumina in uno, recogn. et emendavit Robert Hanhar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²2006.
- Cohen, A., “Ecclesiastes”, H. Freedman and M. Simon, eds., *Midrash Rabbah VIII* 3, ed., London und Newyork: Soncino Press, 1983.
- Collins, J. J., “Sibylline Oracles”, J. H. Charlesworth, 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Vol. I*,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83.
- Klijn, A. F. J., *Die syrische Baruch-Apokalypse*, E. Brandenburger und U. B. Müller und A. F. J. Klijn, *Apokalypsen*, JSRZ V, 2, Gütersloh: Mohn, 1976.
- Merkel, H., *Sibyllinen*, JSRZ V,8, Gütersloh: Gütersloher Verl.-Haus, 1998.
- 박수암, 『요한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이상훈, 『요한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이필찬,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고양: 엔 크리스트, 2009.
- 지동식, 『요한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 Barrett, Charles K.,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an introd. with commentary and notes on the Greek tex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8.
- Bauer, W., *Das Johannesevangelium*, HNT 6, Tübingen: Mohr, 1933.
- Beasley-Murray, G. R., 『요한복음』, 이덕신 역, 서울: 솔로몬, 2001.
- Bernard, J. 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Vol. I*, Edinburgh: T. & T. Clark, 1953.
- Blass F. und Debrunner A. und Rehkopf 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Joachim Jeremias zum 75. Geburtst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¹⁸2001.
- Borgen, P., “Observations on the midrashic character of John 6”, *ZNW* 54 (1963), 232-240.
- Brown, R.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Garden City: Doubleday, 1966.
- Bultmann, R. K., *Das Evangelium des Johann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 Herr, M. D., “Ecclesiastes Rabbah”, *Encyclopedia Judaica* 6, Detroit [u.a.]: Thomson Gale, 2007.
- Hoskyns, E. C., *The Fourth gospel*, London: Faber and Faber, 1947.

- Hübner, H., *Biblische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Band 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 Hysten, S., *Allusion and meaning in Joh 6*, Berlin [u.a.]: de Gruyter, 2005.
- Kollmann, B., *Ursprung und Gestalten der frühchristlichen Mahlfei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 Lindars, B., *The gospel of John*, London: Oliphants, 1977.
- Menken, M. J. J., “The Provenance and Meaning of the old testament in John 6:31”, *NT 30* (1988), 39-56.
- Meyer, R., Art. *Μάννα*, *ThWNT IV*, Stuttgart [u.a.]: Kohlhammer, 1942, 466-470.
- Obermann, A., *Die Christologische Erfüllung der Schrift im Johannesevangelium: eine Untersuchung zur johanneischen Hermeneutik anhand der Schriftzitate*, Tübingen: J. C. B. Mohr, 1996.
- Oegema, G. S., *Einführung zu den Jüdischen Schriften aus hellenistisch- römischer Zeit*, JSRZ, VI,1, Gütersloh: Mohn, 2005.
- Okure, T., *The Johannine approach to mission: a contextual study of John 4:1-42*, Tübingen: J. C. B. Mohr, 1988.
- Painter, J., “Jesus and the Quest for Eternal Life”, R. A. Culpepper, ed., *Critical Readings of John 6*, Leiden [u.a.]: Brill, 1997.
- Richter, G., “Die alttestamentlichen Zitate in der Rede vom Himmelsbrot Joh 6,26-51a”, J. Heinz, ed., *Studien zum Johannesevangelium*, Regensburg: Pustet, 1977, 211-229.
- Ruckstuhl, E., *Die literarische Einheit des Johannesevangeliums: der gegenwärtige Stand der einschlägigen Forschungen*, Freiburg, Schweiz: Univ.-Verl.[u.a.], 1988.
- Schnackenburg, R., *Das Johannesevangelium Teil 2*, Freiburg im Breisgau: Herder, 1985
- Schnelle, U., *Das Evangelium nach Johannes*, Leipzig: Evang. Verl.-Anst., 1998.
- Smyth, H. W., *Greek Grammar*, rev. by G. M. Mess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 Stone, M. E., “Apocalyptic Literature”, M. E. Stone, ed., *Jewish writings of the Second Temple Period: apocrypha, pseudepigrapha, Qumran sectarian writings, Philo, Josephus*, Assen; Maastricht [u.a.]: Van Gorcum [u.a.], 1984.
- Strack, H. L. und Billerbeck, P.,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aus Talmud und Midrasch II*, München: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24.
- Thyen, H., *Das Johannesevangelium*, Tübingen: Mohr Siebeck, 2005.
- Wilckens, U., *Das Evangelium nach Johann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Abstract>

Übersetzung der Antwort Jesu in Johannes 6:32

Dr. Young-Jin Park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Die Aussage Jesu in Johannes 6:32 ist schwer zu verstehen, denn seine Aussage scheint die Forderung des Volks auf das Zeichen zum Glauben an Jesus nicht zu beantworten, sondern ihrer Erkenntnisses, Moses als Brotgeber, zu widersprechen. Darüber hinaus bezieht sich der Unterschied zwischen der Verneinung und der Bejahung nicht nur auf den Brotgeber, sondern auch auf das Tempus. Aus diesen beiden Unterschieden ergibt sich die Schwierigkeit damit, worin der Kontrast seiner Aussage besteht, und zwar im Brotgeber oder im Unterschied der Brote. Vor allem passt die Verneinung Moses als Brotgebers nicht zum Kontext, denn das Volk hat Moses als Brotgeber weder erwähnt, noch Moses mit dem ausgefallenen Subjekt im Zitat gemeint. Daher kommt es nicht infrage, dass Jesus trotzdem Moses als Brotgeber verneint hat. Aus diesen Gründen ist die Aussage Jesu neu zu interpretieren. Der Ansatzpunkt besteht darin, dass der Schwerpunkt seiner Aussage der Kontrast. Der Kontrast bezieht sich nicht auf den Subjekte, denn auch das Subjekt im Verneinungssatz ist in der Tat Gott. Demgegenüber geht es dabei um den Kontrast zwischen dem vergangenen Brot und dem gegenwärtigen Brot. Um Johannes 6:32 noch genauer zu interpretieren, ist die Forderung des Volks in Johannes 6:30f in Betracht zu ziehen, weil die Aussage Jesu ist seine Reaktion auf diese Forderung. Also ist seine Aussage aufgrund dieser Forderung zu verstehen. In Hinblick auf diese Forderung sind diese gegensätzlichen Brote der Inhalt des Zeichens, das das Volk zum Glauben an Jesus gefordert hat.

In dieser Hinsicht bedeutet seine Aussage, dass er als Zeichen zum Glauben an Jesus geben will, nicht das vergangene Brot vom Himmel, sondern das gegenwärtige und wahre Brot vom Himmel. Daraufhin ist Johannes 6:32 folgendermaßen zu übersetzen: “(I will als Zeichen zum Glauben an mich geben will) nicht das vergangene Brot vom Himmel durch Moses, sondern das gegenwärtige Brot vom Himmel, nämlich das wahre Brot”. Diese Antwort Jesu auf die Forderung des Volks ist keine Absage, sondern seine Zusage mit der Korrektur anzusehen.